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316期(2026.10.30) WWW.MINGHUI.ORG 한글판 1080호 minghui.or.kr

▲ 10월 17일, 4600여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타이베이 자유광장에서 초대형 연꽃과 '大法'(대법) 두 글자를 만들었다.

주 요 내 용

【해외법회】 근본 집착을 똑똑히 인식하고 제거하다

【해외법회】 최대한 매 순간 안으로 찾기

【해외법회】 참음의 거대한 힘

【해외법회】 중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목차〉

해외종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 3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 11

수련교류

딸에 대한 정 뒤에 숨어 있는 관념을 바꾸다 …… 14

나는 자신의 어떤 마음가짐 뒤에 숨겨진 집착을 깨달았다 …… 20

해외법회

근본 집착을 똑똑히 인식하고 제거하다 …… 25

최대한 매 순간 안으로 찾기 …… 31

참음의 거대한 힘 …… 42

중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 52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10월 25일 **호주**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심득교류회가 멜버른 소피텔 호텔(Sofitel)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1000명이 넘는 파룬궁수련자가 이번 연례 교류회에 참가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다양한 연령대의 22명의 파룬궁수련자가 교류회에서 발언해 생활, 직장, 학교 및 진상 알리기 항목에서 얻은 수련 체험을 공유했고 어떻게 법을 스승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착실한 수련[實修] 속에서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에 따라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하고 안으로 찾고 집착을 제거하며 심성을 제고했는지 교류했다.

10월 23일 이른 아침, 호주 각지에서 온 파룬궁수련자들이 멜버른의 유명 명소인 피츠로이 공원(Fitzroy Gardens)에서 단체로 연공했다. 남반구 봄날의 햇살 아래, 수련자들은 밝은 노란색 상의를 입고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천천히 연공했으며, 고요하고 평온한 기운이 많은 행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지켜보게 했다. 18세의 줄리어스(Julius)는 말했다. "수련하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저는 사랑과 배려, 이해로 가득 차서 매우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은 제게 타인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닉(Nick)과 어머니, 외할머니는 멜버른에서 가장 먼저 수련의 길에 들어선 서양인 수련자들이다. 1999년 박해가 발생한 이후, 닉과 그의 가족은 파룬궁을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러 베이징에 간 첫 번째 무리 중 하나였다.

10월 23일 정오 무렵, 호주 전역에서 온 파룬궁수련자들이 멜버른에 모여 퍼레이드를 열었다. 경찰차의 호위를 받으며 수백 미터에 달하는 퍼레이드 대열은 도심 번화가 상업지구와 차이나타운을 지나며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이 퍼레이드는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렬한 활력과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퍼레이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주 선명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라고 잇따라 말했다. 많은 사람이 박해를 종식하라는 청원서에 서명하며 파룬궁수련자들의 평화적인 박해 반대 활동을 지지했다. 캐럴은 멜버른의 한 학교 교장으로 당일 마침 이 성대한 퍼레이드 행사를 목격했다. 교육자로서 캐럴은 파룬궁의 이념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말했다. “진선인의 가치관은 보편적입니다. 저는 이 가치관이 가정 교육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 갖는 기본 인식의 일부가 돼야 하며 이는 부모의 솔선수범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마땅히 이 아름다운 가치관을 갖춰야 하며 이는 인간 선함의 근본적인 체현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퍼레이드 전체가 아주 평화로웠고 조직이 질서정연했으며 현수막도 매우 선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파룬궁수련자들)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박해를 알게 해주는 이런 방식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만행을 폭로하는 ‘소리 없는 외침’ 국제 포스터 전시회가 **일본** 오사카부 사카이(堺)시의 사카이시립문화관에서 열렸다. 전시회는 일반사단법인 ‘중국 장기이식 고려회(SMG network)’가 주최했으며, 일본, 한국, 대만 비정부기구(NGO)가 공동 주최한 국제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해, 중국공산당(중공)이 오랫동안 파룬궁수련자 등 단체를 겨냥해 자행해 온 강제 장기적출 만행을 폭로했다. 여러 의원이 전시를 관람하고 지지를 표명했으며, 관람객들은 각계가 공동으로 박해를 종식할 것을 잇달아 촉구했다. 이케지리 히데키(池尻秀樹) 사카이시 의원은 전시회 개막 첫날 행사장을 찾아 말했다. “오늘 사카이시에서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행사를 열게 돼 매우 기쁩니다. 저 역시 이번 전시회가 시 교육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이케지리 의원은 강조했다. “이러한 인권 침해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 역시 계속해서 일본에서 명확한 목소리를 내며 사회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중의원 의원도 행사장을 찾아 포스터 전시회를 관람했다. 그는 일본 국회가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비인도적인 만행을 근절하기 위해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첫째는 자국민이 출처가 불분명한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중국으로 가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고, 둘째는 일본 내 장기 기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10월 18일, 필라델피아 파룬따파 수련심득교류회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다. 펜실베이니아주, 델라웨어주 및 뉴저지주에서 온 파룬궁수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12명의 동서양 수련자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슬럼프에서 벗어나 집착을 내려놓고 갈등과 시련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며 진상 알리기를 견지했는지에 대한 체득을 나눴다. 그들의 나눔은 병업과 생사의 고비, 수련 중단 후의 복귀, 수련자 간의 갈등, 그리고 어린

시절 경험이 가져온 장기적인 고통을 다뤘다. 서로 다른 인생 경험은 참가자들에게 각자가 구체적인 생활 환경 속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부족함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10월 17일, 필라델피아 시의원 캐서린 길모어 리처드슨은 필라델피아 동북부의 한 교회에서 여성 건강박람회를 개최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파룬궁수련자 부스에 와서 문의하고 알아봤으며, 어떤 이들은 현장에서 파룬궁을 배웠다.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 샤리프 스트리트도 현장에 와서 건강박람회를 지지했다. 그는 파룬따파 부스에 와서 자신도 파룬궁을 체험해 본 적이 있다며 “매우 편안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저는 오늘날 세상에는 확실히 더 많은 평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더 평화롭고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좋은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스트리트 상원의원은 수년간 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받는 파룬궁수련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10월 23일 저녁,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연례 홈커밍데이 퍼레이드가 열렸다. 퍼레이드에 참가한 약 90개 학생 단체 중 하나인 미네소타 대학 파룬궁 클럽이 정성껏 꾸민 꽃차가 거리에 등장해, 수천 명의 현장 학생과 현지 주민의 눈길과 환호를 끌어냈다. 약 30분의 행진 코스 동안, 대열이 지나는 곳마다 수시로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많은 시민이 “최고로 아름다워요!”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한 무리의 미네소타 대학 남학생 클럽 회원들은 대열이 지나갈 때 일제히 “파룬따파!”라고 환호했다.

10월 24일 토요일, **캐나다** 몬트리올 도심의 번화한 상업 거리에서 눈길을 끄는 현수막들이 퍼레이드 대열을 따라 천천히 나아가며 행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현수막에는 ‘파룬따파하오(法輪大

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파룬궁 박해를 중지하라', '캐나다 내 중공의 공갈 협박을 저지하라', '캐나다는 중공에 고개 숙이지 말라'라고 적혀 있었다. 천국악단과 현수막 대열로 구성된 퍼레이드 대열은 예술센터 광장에서 출발해 도심의 번화한 간선도로인 메종뇌브 대로, 생트 카트린 대로, 생튀르뱅 거리를 따라 행진한 뒤 최종적으로 차이나타운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은 집회를 열고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3개 국어로 발언하며 시민들에게 중공의 만행을 널리 폭로했다. 행사 당일의 퍼레이드와 집회는 시민들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멕시코시티에서 온 교육 종사자 디아나 니에토(Diana Nieto)는 퍼레이드를 관람한 후 "저는 선량함과 인내의 메시지를 보았고, 중공의 파룬궁 박해와 관련된 메시지도 보았습니다. 중공은 은폐하고 있으니 그것을 폭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어떤 사회에든 유익합니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바탐시 탄중성쿠앙 커뮤니티 건강센터(Tanjung Sengkuang Community Health Center)는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Prolanis) 참가 환자들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하기 위해 파룬궁 수련자를 초청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7일(토요일) 오전에 열렸으며 건강센터 책임자, 의사, 간호사, 환자를 포함해 100명 가까운 인원이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74세 여성 누룰 하야티(Nurul Hayati)는 말했다. "저는 걸을 때마다, 앉으려 하거나 일어서려 할 때 모두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시장에 가거나 다른 곳에 갈 때도 지팡이 없이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단체 연공이 끝난 후, 놀랍게도 그녀는 지팡이에 전혀 의지하지 않고 몸을 곧게 펴고 일어설 수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경험을 나

누는 것을 듣고 다른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열렬히 박수를 쳤다. 커뮤니티 건강센터 책임자 데니 줄리아(Deny Zulia) 의사는 흥분하여 밝혔다. “이 파룬따파는 정말 대단합니다! 직접 체험해보니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기르고 제 감정을 조절하며 인내심을 단련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9일과 10일, **그리스** 및 유럽 여러 나라 파룬궁수련자들이 그리스 수도 아테네 시내 중심가와 유명 관광지에서 4차례의 집회와 퍼레이드를 개최했다. 파룬궁수련자들로 구성된 유럽 천국악단, 요고(腰鼓)팀, 용춤·사자춤팀도 행사에 참여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선보였고, 각계각층에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관심을 갖고 박해 종식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퍼레이드 행렬은 아테네 시청 맞은편에 있는 코치아 광장(Kotzia Square)에서 출발했다. 이후 행렬은 스타디우 거리(Stadiou Street)를 따라 신타그마 광장(Syntagma Square) 방향으로 행진한 뒤, 에르무 거리(Ermou Street)를 따라 나아가 번화한 모나스티라키 광장(Monastiraki Square)을 지나 마지막으로 티시오 광장(Thissio Square)에 도착했다. 모나스티라키 광장은 시내 중심에 위치해 관광객들이 아크로폴리스를 감상하는 인기 명소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박수를 치고 손을 흔들며 환호하는 사람도 있었고, 엄지를 치켜세우며 지지를 표하는 사람도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천국악단의 리듬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많은 사람은 퍼레이드가 보여준 평화로운 분위기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악단의 연주가 듣기 좋고 감동적이라고 말했다. 중공의 박해 진상을 이해한 후 적지 않은 시민들이 파룬궁수련자들을 성원하는 서명

을 했다.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핀란드**의 '아이 러브 미(I love me)' 전시회가 헬싱키 전시센터에서 열렸다. 파룬궁수련자도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다. 파룬궁수련자는 파룬궁 공법 시연, 자료 배포, 대면 교류 등의 방식으로 대중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하고 파룬따파가 중국에서 중공의 박해를 받는 상황을 알렸으며,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생체 장기적출 및 관련 인권 유린 만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북적이고 소란스러운 전시관에서 노란색 옷을 입은 수련자가 조용히 공법을 시연해 주변 분위기와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적지 않은 방문객이 이끌려 다가와 먼저 자료를 받고 발걸음을 멈춘 채 파룬따파에 대해 알아봤다. 일부 시민은 수련자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고, 현장에서 공법을 배워보고 《파룬궁》과 《전법륜(轉法輪)》 등의 책을 구입하는 사람도 있었다.

2026년 9월, 카리브해에 위치한 **프랑스** 해외주 과들루프 여러 도시에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협회 포럼 행사가 연이어 개최됐다. 9월 12일부터 26일까지 파룬궁수련자들은 쁘띠부르, 생탄, 카페스테르벨오, 생트로즈, 바스테르 등지에서 열린 행사에 잇달아 참가했다. 많은 시민이 처음으로 파룬따파를 들었으며, 파룬궁이 '진선인'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과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를 지속적으로 박해하는 상황을 이해한 후 잇따라 관심과 지지를 표했다. 적지 않은 사람이 박해 반대 청원서에 서명했고, 공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거나 현지에 수련자를 초청해 연공 동작을 가르쳐 달라는 사람도 있었다. 9월 26일, 유럽의회 의원 로디 톨라시가 카페스테르벨오의 파룬궁 부스에 찾아와 박해 반대 청원

서에 서명하며 중국에서 박해받는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10월 18일,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국가에서 온 파룬궁 수련자들이 다시 스위스 중부의 작은 마을 슈프하임(Schupfheim)에 모여 제7회 스위스 독일어권 법회에 참가해 19명 수련자의 발언을 경청했다. 수련자들은 일상생활과 항목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의 일사일념에서 집착을 발견하고, 사부님의 가지(加持) 아래 대법에 대조해 심성을 제고했는지 교류했으며, 아울러 이 과정에서 느낀 '진선인' 및 대법의 힘을 공유했다. 여러 수련자는 자신의 근본적인 집착을 찾고 제거하는 과정에서의 체득과 대법제자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했다.

10월 16일, **이스라엘** 제22회 파룬따파 수련심득교류회가 라아나나에서 열렸다. 이스라엘 각지와 해외에서 온 수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상생활과 가정 및 직장에서 '진선인'을 실천한 각자의 심득체험을 교류했다. 회의장 무대 배경의 대형 스크린에는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시집 '홍음2(洪吟二)' 중의 '법정건곤(法正乾坤)'이라는 시가 투영됐다. 현장 분위기는 상화롭고 장엄했으며, 발표자의 진실한 경험은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파룬궁수련자 마링(馬玲)은 **윈난**대학 도서관 퇴직 부연구관으로, 여러 차례 중공(중국공산당)의 강제노동, 징역형 및 경제적 압박 등 박해를 받았다. 2024년 6월 6일 납치된 그녀는 이후 또 다시 불법적으로 3년 반형을 선고받았다. 위급한 병증에 시달려 감금하기에 부적합했기에 그녀는 '취보후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으로 집에 돌아왔다. 8개월 뒤인 2025년 12월 23일, 마링은 11가지 위중한 병증이 검진된 상황에서 중공 법원에 의해 다시 '수감'돼 윈난성 제2여자감옥에 감금됐다. 2026년 7월, 마링은 끝내 병세가 위독해 '감외집행'으로 집에 보내졌다. 10월 2일, 마링은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다. 향년 69세였다.

지린성 수란시 파룬궁수련자 청레이(程磊)는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여러 해 동안 일했는데, 2025년 10월 29일 광저우 충화구에서 경찰에게 납치돼 감금당하고 모함을 받았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2026년 9월 16일 광저우 리완구 법원에서 부당하게 7년 반 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 중이다. 청레이는 올해 59세로, 일찍이 중공으로부터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고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전후로 총 10여 년간 감금 박해를 받아 심각한 심장병이 생겼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에 납치된 후 신체에 이상이 생겨 공안 병원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지린성 쑹위안시 창링현 파룬궁수련자 추잔펑(褚占豊)은 일찍이 불법적으로 4년 반 형을 선고받았다. 출옥 후, 그녀는 끊임없

이 괴롭힘과 감시를 당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떠돌며, 헤이룽장성 다칭시로 가서 생계를 위해 일했다. 그러나 2026년 4월 25일, 63세인 추잔펑은 다칭시 싸얼투구 공안분국 경찰에게 다시 납치됐고, 이후 다칭 고신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4년 반 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추잔펑은 이미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톈진시 닝허구의 73세 파룬궁수련자 리광위안(李廣遠)은 2025년 12월 9일 시장에서 시민들에게 파룬따파가 좋다는 진상을 알리다가 경찰에게 납치돼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고, 닝허구 구치소에 감금됐다. 2026년 8월 리광위안은 닝허구 공검법(公檢法: 공안, 검찰, 법원)의 공모로 4년형을 부당하게 선고받았다. 리광위안 부부는 신앙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괴롭힘, 협박, 불법 가택수색, 감금, 갈취, 강제노동, 모함으로 인한 징역형을 당했고, 심지어 구타와 고문을 받아 심신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산둥성 짜오좡시 파룬궁수련자 류옌리(劉彥利·여·59)와 리창(李強)은 최근 짜오좡시 법원에서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불법적인 4년형을 선고받았다. 2025년 9월 23일, 그들은 중공 경찰에게 납치돼 지금까지 1년 넘게 짜오좡 구치소에 감금돼 있다. 류옌리와 리창은 파룬궁 신앙은 합법적이고 죄가 없으며, 자신들은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시종일관 견지했다. 그들은 부당한 판결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이미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했다.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파룬궁수련자 싱자추(邢家秋), 장슈잉(張秀英) 부부가 2025년 6월 9일 롄산제 파출소 경찰에게 무단 침입으로 납치돼 불법적으로 감금됐다. 2026년 4월 15일, 두 사람은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고, 8월 3일 롄산구 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형을 불법적으로 선고받고, 벌금 1만 위안을 각각 부과받았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들의 항소는 2026년 10월 12일 기각됐다.

다롄시 62세 파룬궁수련자 푸슈민(付秀敏)은 2026년 3월 18일, 시민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던 중 간징쯔 공안분국 국보경찰에게 납치 및 가택수색을 당하고 감금됐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그녀는 이미 다롄시 간징쯔구 법원에서 불법적인 3년형을 선고받고 2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현재 푸슈민 본인은 상소(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헤이룽장성 허강시 파룬궁수련자 류칭푸(劉慶福)가 2026년 5월 중순 현지 경찰에게 납치돼 이후 허강시 구치소에 감금됐다. 2026년 10월 중순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류칭푸는 허강시 싱안구 법원에 의해 3년 2개월의 부당한 형을 선고받고 벌금 5천 위안을 갈취당했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파룬궁수련자 장즈쥐안(張志娟)은 60세가량으로 2025년 10월 25일, 경찰이 집에 들이닥쳐 납치됐고 가택수색을 당했으며, 이후 하얼빈시 구치소(야쯔취안)에 감금됐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그녀는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딸에 대한 정 뒤에 숨어 있는 관념을 바꾸다

글/ 영국 화인 대법제자

[명혜망] 우리 삼촌 말씀에 따르면, 내가 어려서부터 자란 가정은 수만 가구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집이었다. 외할아버지, 아버지가 중공 악당이 조작한 두 세대에 걸친 억울한 사건의 피해자가 되면서, 내가 철이 들 무렵부터 집안은 숨이 막힐 듯 억압적인 분위기였다. 아버지는 성격이 난폭해 악당이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데 대한 분노를 우리 자녀들에게 모두 쏟아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언제 맞거나 욕을 먹을지 몰라 늘 두려워했다. 어머니는 토지개혁 당시 악당의 선동을 받은 시골 불량배들에게 외할아버지가 잔인하게 맞아 돌아가신 충격의 그늘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셨다. 약을 먹고 깊은 잠에 빠져 지내는 것이 어머니의 일상이었기에,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었다. 나는 7~8살 때부터 부엌 아궁이보다도 키가 작았지만, 빨래하고 밥을 지으며, 어린 동생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내 삶에는 어린 시절의 즐거움,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던 기억이 없다. 그때 나는 심지어 아버지가 노동 개조를 받으러 가셨으면 좋겠다고 바라기까지 했다. 그렇게 되면 집을 떠나실 테니, 나도 더는 두려움에 떨며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성장하면서 나는 많은 책을 읽었고, 수많은 사람과 일을 겪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많은 가정, 특히 당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억눌려 있던 이른바 '지주, 부농, 반혁명분자, 악질분자, 우파분자'의 자녀들을 보게 됐다. 비록 그들

이 사회에서는 차별과 탄압을 받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안식처가 있었다. 물질적으로는 비록 궁핍했어도, 그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가족과 의지하며 따뜻함을 나눌 수 있었다. 반면 당시 내 처지는 사회에서도 차디차고 집안도 차디찼기에, 나는 종종 자신이 일부 '지주, 부농, 반혁명분자, 악질분자, 우파분자'의 자녀들보다도 못하다고 느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내게는 하나의 뿌리 깊은 관념이 생겨났다. 바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든 변함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문학 작품에서 나타나듯, 어머니의 사랑은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자녀를 길러주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우뚝 솟은 높은 산처럼 기댈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다. 어렴풋이 이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법을 얻기 전에는 주로 그 암울했던 사회적 역사가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내 삶에서 받은 사랑과 보살핌이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인지, 딸이 자라는 동안 나는 어머니로서 아이에게 마땅히 줘야 할 사랑 외에도, 내 삶에서 결핍됐던 그 사랑까지 전부 딸에게 쏟아부었다. 마치 그래야만 내 삶이 온전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인생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지만, 딸의 인생만큼은 내가 도와 이끌어 주고 싶었다. 그래서 당시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나는 고집을 부려 딸이 5살 때부터 비파를 배우게 했고, 10살 때부터 외국어를 배우게 했다. 딸도 기대에 부응해 어려서부터 착하고 철이 들었으며, 성적도 우수하고 문과와 이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종합적인 능력이 뛰어났다. 친척과

친구들 사이에서는 늘 소위 '엄친딸'로 불렸다. 결국 딸은 해외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쳤고, 순조롭게 고급 기술 인력 이민 비자도 받아 영국에 남았으며, 현재는 한 대기업에서 총감 직책까지 올랐다. 친척과 친구들이 딸의 성공을 칭찬할 때면 나 역시 영광스러웠고, 그것이 내 노력과 헌신으로 얻어낸 최고의 보답이라고 여겼다.

딸이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딸까지 낳은 후에도, 내가 딸이 성장할 때 썼던 그런 가치관으로 대하자 딸은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몇 차례 갈등이 발생한 후 나는 마음이 몹시 아팠다.

다행히 나는 대법을 수련했고, 내게는 심법(心法)이 있었다. 나는 안으로 찾으며, 딸에 대한 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정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는 수련할 수 없었다.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손을 놔야 한다. 그동안 나는 마치 어미 닭처럼 날개를 길게 뻗어 늘 딸의 비바람을 가려주려 했다. 딸의 모든 일을 내가 앞서서 고려해 줬지만, 이제는 독립시켜야 한다. 마땅히 딸 스스로 자기 인생의 비바람을 겪게 해야 한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사람이 일생 동안 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는 백년 후에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뉴질랜드법회 설법)

그동안 나는 딸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험난함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딸이 이번 생에서 업력을 소멸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내가 딸을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해치는 것일까? 그녀가 내 딸로 온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얻기 위해서였다. 비록 딸이 아직 그리 정진하지는 못할지라도, 우주의 진리, 선악 시비의 기준이 이미 딸의 마음속에 뿌리내렸는데 내가 더 걱정할 게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과거 딸의 모든 일에 관

여하고, 모든 것을 내 말대로 해야만 했던 사고방식을 바꿨다. 지금은 무슨 일이 생기면 딸에게 조언은 해주지만, 내 말대로 완전히 따르는지에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자 오히려 나와 딸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

이것은 내가 법에서 딸에 대한 정을 내려놓은 한 단락의 경험이다. 하지만 내가 철저히 내려놓았다는 말은 아니다. 작년에 나는 딸의 집에서 이사해 나오며 생각했다. '딸 곁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어쩌면 딸에 대한 내 정이 점차 옅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뇌에서 통제 불능 상태로 이따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딸네 가족이 요즘 뭘 먹었을까, 영양은 충분할까, 날씨가 추워졌는데 딸과 어린 외손녀는 옷을 적절하게 입고 있을까' 등등이었다. 그것은 그토록 딸에 대한 얽매임이 깊어서, 마치 이미 내 생명의 아주 미시적인 부분에까지 융합된 것만 같았다.

내가 딸에 대한 정을 내려놓는 데 또 한 번의 작은 돌파가 있었던 것은 최근의 법 암기 덕분이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인류 고유(固有)의 오랜 관념이 한 세트의 사업·사유방법으로 형성된 후에는 새로운 인식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 진리가 나타났는데도 그것을 감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배척한다."(전법륜) 처음에 사부님의 이 단락 법을 배울 때마다, 나는 줄곧 중공 악당이 다년간 선전해 온 무신론, 진화론의 각도에서 이해했고, 내게는 이런 낡은 관념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나는 30세 이전에 이미 중공 악당이 선전하는 무신론, 진화론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나는 수련을 믿고, 신의 존재를 믿었으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었다. 즉, 당시 그 사회가 전부 미신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나는 전부 믿었다.

나는 인류 고유의 오랜 관념이 결코 내가 과거에 인식했던 그 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식했다. 예를 들어 딸에 대한 내 정 역시 사실은 머릿속에 고정된 하나의 낡은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를 사랑해야 하고, 능력껏 아이에게 성장과 발전의 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부모로서 다해야 할 책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관념이었다. 이렇게 수년간 법공부를 하면서 나는 비록 이런 관념이 틀렸음을 인식하게 되기는 했다. 사람마다 각자의 운명이 있기 때문이다. 선악에는 응보가 있고, 인과 윤회하며, 우주의 법리가 모든 것을 제약하고 있다.

내가 이 뿌리 깊은 관념과 딸에 대한 정을 연결해 보자, 딸에 대한 내 정 속에는 이 층차 공간의 정상적인 자녀의 정 외에도, 그 뒤에서 강력하게 지탱해 주는 이 관념이 존재함을 보게 됐다. 그래서 내가 딸에 대한 정을 내려놓을 때 늘 미련이 남아 질척거렸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 관념이 끊임없이 이 정을 돕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깨닫는 순간, 딸에 대한 정을 내려놓는 것이 단번에 훨씬 쉽고 홀가분해졌다.

그렇다면 수련인은 속인이 보편적으로 맞다고 여기는 이런 관념을 어떻게 법에서 타파해야 할까? 아래는 현 단계에서 내가 이 방면에 대해 깨달은 몇 가지다.

1. 어쩌면 자신이 이번 생에 법을 얻어야 하는데, 업력이 너무 커서 가로막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반드시 이런 가정에 환생하도록 안배해 비교적 큰 고난, 고통을 감당해야만 업력을 소업하고 도에 들어와 법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안배는 틀림없이 나 자신도 동의했을 것이다.

2. 어쩌면 자신이 어느 전생에 이번 생의 부모에게 잘하지 못해, 업의 빚을 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생에는 인과 윤회로 빚을 갚고 이 한 단락의 원한 맺힌 인연을 끝맺어야 했을 것이다.

3. 사람의 일생은 고층 생명이 안배하며, 특히 이번 생에 법을 얻어야 할 대법제자는 더욱 그렇다. 만약 부모가 당년에 내게 순탄한 인생길을 안배해 줬다면, 이런 안배를 파괴하고 내가 법을 얻을 기회를 망쳤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4. 사람의 이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신이 딸을 위해 한 모든 일을 너무 무겁게 보지 말아야 하며, 어쩌면 모두 인연 관계가 있을 것이다. 설령 내가 하지 않거나 적게 했더라도 운명의 수레바퀴는 딸을 인생의 가야 할 위치로 밀어주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한 모든 일 역시 일종의 필연이 된다.

5. 인간 세상의 이치는 반대 이치다. 자신이 겪은 인생의 고난을 법에 서서 인식하고, 관념을 바꾸어 법 속에서 해소해야 한다. 이번 생의 처지를 촉성한 하늘의 안배와 이번 생의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

6. 우주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행된다. 크게는 층층의 천우(天宇)부터 작게는 자신과 같은 한 알의 생명 미립자까지 모두 안배된 것이다. 자신은 오직 법 속에 녹아들어 스스로를 깨끗이 씻고 사명을 완수해야만 사부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생명의 이 여정들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자신의 어떤 마음가짐 뒤에 숨겨진 집착을 깨달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나는 수련에 들어선 지 이미 10여 년이 됐지만, 여전히 제거하지 못한 많은 마음이 있음을 종종 발견한다. 많은 경우 자신의 어떤 관념이나 행동 이면에 집착이 숨어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곤 한다. 게다가 그것은 사부님께서 설법 중에 진작 지적해주신 아주 뚜렷한 마음인 경우가 많았는데, 나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현재 중국 내 어느 대학에서 일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교사의 수준과 능력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는 수업량이나 학생 성적이 아니라, 교사 본인의 학술적 산출 능력이다. 즉 논문을 얼마나 발표하고, 프로젝트를 얼마나 많이 따내며, 어떤 등급의 인재 양성 공정에 평가되는가 하는 것들이다. 악당의 거짓되고 과장되며 텅 빈 내용,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동시에 신전(神傳) 문화를 악의적으로 파괴하는 교육 및 연구 방향하에, 중국 학계는 수십 년간 온갖 쓰레기들을 숨겨오며 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연줄을 만들고 파벌을 형성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으며, 자신만의 관점이 있고 진정한 학문적 실력이 있는 사람은 흔히 묻히거나 심지어 탄압을 받았다. 반면 대인 관계를 잘 관리하고 수시로 아부하며 심지어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각종 자원을 쉽게 얻어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학업 성적이 비교적 좋았고, 각 단계의 학업 과정에서 만난 스승들은 기본적으로 진지한 연구 태도와 뛰어난

학술적 수준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 역시 내 앞에서 학계의 온갖 흑막과 불공정을 자주 비판했으며, 그들은 내게 세상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진정한 실력으로 성과를 거두며 정직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가짐이 생겼다. 분명 학술적 능력이 없으면서도 온갖 속임수와 기회주의적인 수단을 통해 성장한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얕보게 된 것이다. 나는 줄곧 이런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로 그런 경멸받는 자들의 행동 자체가 확실히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수단을 통해 학술적 성과를 얻었으며, 이를 이용해 이익과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이런 마음가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일반적인 시비 판단의 범위를 넘어서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애초 스승들이 가르친 대로 자신을 잘 관리해 기회를 엿보거나 속임수를 쓰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얕보거나 심지어 혐오하는 데까지 발전했다. 마침내 그것은 일종의 오만함, 심지어 음침한 심리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점차 변해갔다. 이 바닥에서 이름이 꽤 알려진 누군가가 실제 수준은 아주 평범하다는 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가 정말로 속임수를 썼든 안 썼든 상관없이 나는 무의식중에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얕보기 시작했다.

비교적 전형적인 예로 내 동료가 한 명 있다. 그녀는 석사 학위만 있었지만 비교적 일찍 입사해 직함 평가가 수월했던 마지막 몇 년의 시기와 맞물려 아주 평범한 성과만으로 부교수가 됐다.

하지만 아마도 박사 과정의 연구 훈련을 거치지 않고 충분한 연구 기초를 쌓지 못한 탓인지, 이 동료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학계 생태계에 직면해 자주 내게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녀는 연구하기가 너무 힘들며 학부생 수업을 하는 것조차 부담감을 느낀다고 했다. 나는 입으로는 그녀를 위로하고 아이디어를 짜냈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녀를 얕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능력이 부족하며 직함을 딸 수 있었던 건 단지 경쟁이 덜 치열했던 시기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최근 법공부를 할 때,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치를 말해 주겠는데, 속인이 인식할 수 없는 이치다. ‘당신이 보기에는 당신이 무엇을 해도 다 잘하지만 당신의 명(命) 중에는 없으며, 그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지만, 그의 명 중에는 있기에 그는 간부가 되었다.’ 속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속인의 생각이다. 더욱 고급적인 생명이 볼 때, 인류사회의 발전은 다만 특정한 발전법칙에 따라 발전함에 불과하므로, 사람의 일생 중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그가 당신의 능력에 따라 당신에게 안배해 주는 것이 아니다”(전법륜)라는 단락을 읽었을 때 속으로 화들짝 놀랐다. 겉보기에 ‘명실상부하지 않은’ 학자들을 향한 나의 ‘얕보는’ 태도 이면에도 일종의 질투심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갑자기 깨달았다. 속인이 특정 학문, 특정 분야에서 가진 능력이 반드시 대우, 지위, 직함 같은 것들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 한 사람에게 ‘진정한 실력’이나 ‘학술적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단지 속인의 생각이며 속인의 평가 기준일 뿐, 고급 생명이 속인 사회를 안배할 때의 기준은 아니다. 내가 기회를 엿보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얕본 것은, 사실 내가 힘들게 노력해 성과를 얻은 반면 다른 사람들

은 더 쉬운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고 심지어 나보다 더 큰 성취를 이룬 것을 보며 내심 불공평함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질투심은 진정한 실력을 긍정하고 속임수를 반대한다는 관념 속에 숨어 있어, 내가 마치 정직하게 학술적 도덕 규범을 수호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런 거짓된 정의감 이면에 있는 진짜 마음이 바로 질투심의 작용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반성해보니, 나의 질투심을 감춰주던 그 겉보기에 정당해 보이는 '정의감' 역시 사실 단순한 것이 아니라 명예와 이익에 대한, 그리고 내가 종사하는 연구 업무에 대한 나의 집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며 거짓으로 꾸며대서는 안 된다. 하지만 대법제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잘 수련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수련시키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업무에서 착실하게 임하는지 여부가 한 생명이 이 순간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소도 아니다. 만약 그 저 어떤 사람에게 진짜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확실히 속임수를 쓰고 기회를 엿보는 일을 좀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얕보는 마음이 생기고 나아가 그를 멀리한다면, 이는 법의 요구에 따라 타인을 선하게 대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해 돌이킬 수 없는 아쉬움을 남길 수 있다. 하물며 현재 중국 대학에서 많은 사람이 명예와 이익을 위해 스스로 존엄을 포기했다기보다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다. 각급 지도자들이 업적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높여놓은 평가 기준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좋지 않은 방식으

로 연구 성과를 얻기로 선택한 것이다. 생존에 내몰린 이런 사람들에게 헛된 명성은 생존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그에 비해 나는 오히려 그런 '진정한 실력'과 '진짜 능력'을 지나치게 중시했다. 사실은 동종 업계 사람들에게 진정한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이것 역시 명예에 대한 집착이 아니겠는가?

이 밖에도 각종 수단을 동원해 온갖 자원을 얻어내는 학자들에 대한 나의 불만 이면에는, 자원이 그들에게 선점당하지 않았다면 내 개인 능력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발전과 보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역시 사실상 명성과 이익에 대한 집착이 아닌가? 내가 이 문제와 관련해 본질적으로 속인이 정한 '학술 도덕'과 '학술 기준'을 지나치게 무겁게 여기면서도, 나 자신을 진정한 수련인으로 여기지 않고 남의 입장에서 타인을 위해 배려하지도 않았으며 중생구도를 최우선에 두지도 않았다. 이는 곧 내가 대법의 기준이 아닌 업무 분야의 준칙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며, 내가 종사하는 이런 속인 업무에 대해 여전히 아주 강한 집착을 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찬찬히 정리하고 나서야, 나는 이 문제에 그토록 많은 집착과 수련의 누락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했다! 사부님의 일깨움과 자비에 감사드린다. 제자는 반드시 자신을 잘 수련해 정법시기 대법제자의 신성한 책임을 더 잘 짊어질 것이다.

개인의 작은 수련 체득이니 수련생들의 자비로운 지적을 바란다.

근본 집착을 똑똑히 인식하고 제거하다

글/ 유럽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부님께서는 일찍이 근본 집착에 대해 언급하셨고, 수련인은 결국 이를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수련을 시작하던 때를 떠올리며, 애초에 무엇이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게 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하고 법을 배우는 것은 진정한 수련이 아니다. 하지만 수련 중에서 자신의 근본적인 집착을 점차 인식하여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수련인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근본적인 집착인가? 사람은 세상에서 많은 관념을 양성했으며, 관념에 이끌려 동경하는 것을 추구한다.”(정진요지 2-원만을 향해 나아가자)

1998년 우연히 한 잡지에서 파룬궁에 관한 글을 보고, 즉시 이것이 진정한 수련 법문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세상의 고난과 번뇌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강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대법서적을 읽음으로써 세상의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점차 제가 사실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고 자유로우며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삶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부님께서 모든 업력을 하루빨리 없애주시고, 가부좌

중에 다른 공간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고난을 겪었기에, 이제는 시련 없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마치 파룬따파라는 '보호막'이 생겨서 어떤 문제든 대처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수련은 엄숙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단번에 깨달음을 얻겠다는 생각은 거대한 환상이자 순진한 일방적 바람이었습니다. 파룬따파 안에서 고생과 고통을 인내하고, 이를 수련 길의 일부로 여겨야 하며 심지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성 고비를 아주 쉽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환희심이 생겨 저 자신이 쉽게 원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일부 수련생이 왜 그렇게 많은 장애와 병업 고비를 겪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근기를 가졌다고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독단적으로 행동하며 다른 사람을 얕보았고, 존경하는 사부님께서 해주신 공로를 제 것으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만하고 오만하며, 남의 공로를 가로채고 거만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자비로우신 사부님, 제가 틀렸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저를 위해 이토록 많은 관난을 감당해주셨고, 제가 오늘날 대법제자가 되는 행운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집착을 단호히 거부하고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가정과 다른 수련생들 사이에서 대인 관계의 도전이 나타났습니다. 고비가 엄중할수록 더욱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안으로 찾아보며 저에게 아무런 걱정 없는 삶에 대한 집착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언쟁 속에서 제 관점을 직시해야 했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잘못된 비

난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너그럽게 대하고 원망심을 없애야 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제한된 인식으로 수련생들의 힘든 헌신을 평가하기보다 그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종종 저를 통제하고 지적하려 했습니다. 한번은 그녀가 매일 너무 많은 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이메일 그룹과 휴대폰 그룹에 동시에 파룬따파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녀가 유일하게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그녀 자신도 메시지를 두 그룹에 다 보내는 등 자주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웠고, 그녀에게 주의를 주려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남을 가르치려는 태도로 반격해서는 안 되며, 이것이 안으로 찾을 좋은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의 거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파동이 일었습니다. 그때 단지 생각만 했을 뿐이지만, 남의 잘못을 강조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정한 수련자답게 안으로 찾지 않고 밖을 향해 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태도와 오만함은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럴 때 자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저는 이 수련생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녀가 저의 집착을 보게 해주고 승화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사부님께서 제 심성을 높이라고 일깨움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부님의 안배에 이토록 감사할 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사부님께서는 이미 저를 위해 그렇게 많은 업력을 없애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작은 고통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저는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慈悲(츠뻬이)는 천지에 봄이 오게 하고 정념은 세상 사람을 구하는도다”(홍음 2-법정건곤).

자비는 참으로 원망심을 녹일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을 때, 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꺼리는 마음과 극복

작년에 남편이 갑자기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스위스 남부에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짐을 챙겨 3시간을 달려갔습니다. 남편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거의 걷지 못했고 목소리도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심각성을 몰랐기에 남편은 병원에 가서 검사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매우 불안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웠습니다. 그런 다음 남편은 저와 함께 식당에서 뭔가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응급으로 입원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가벼운 뇌졸중으로 진단했습니다. 남편은 몇 시간 뒤에 퇴원하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결국 퇴원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가지(加持) 덕분에 우리는 다음 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남편이 밤에 정상적으로 화장실을 갈 수 없었기에 저는 수시로 남편의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냄새 때문에 속이 메스꺼웠고, 더러운 속옷과 침대 시트를 빠는 일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파룬따파 수련자이니 이 모든 것을 홀가분하게 대해야 해. 나는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어. 남편이 이미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나는 속으로 이런 작은 일들을 원망하

고 있구나. 이것이 집착을 없앨 기회가 아닌가?' 점차 남편의 옷을 빨 때 더 이상 속이 메스껍지 않았고, 남편의 처지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겪은 고통이 적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 마음은 더욱 넓어졌고 더 너그러워졌습니다. 이번 경험에 대해 자비로우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명확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다

올해 남편은 갑작스럽게 등 부위에 응급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무척 불안했습니다. 수술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고 교수도 만족해했습니다. 원래 2주로 예정됐던 입원 기간이 결국 5주로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에 저는 거의 매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법공부를 하고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외웠으며, 몇 걸음 걸으며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혼자서 법공부를 잘하지 못했기에 처음에는 좀 실망했고, 이번 불운이 어쩌면 사부님의 일깨움이길 바랐습니다. 나중에 저는 압박을 가할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격려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전에 독일 퓌센에 가서 션윈 공연을 함께 보기로 계획해 두었습니다. 저 역시 NTD TV의 홍보 업무를 배정받았습니다. 남편의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퓌센에 갈 수 있을지 한동안 망설였고 심지어 이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했더니 남편은 저 혼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간에 저는 저 자신에게 의지해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일까? 이번에 NTD TV 지원을 거절해야 할까? 이때 남편 혼자 병원에 남겨둔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게는 어떤 집착이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볼까

봐 두려워하고 체면을 구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 이 일로 사람들이 대법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만약 가지 않는다면 이 결정은 바른 것일까? 내가 정에 집착해 구세력이 안배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출발하기 얼마 전, 남편이 좋은 의료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이틀 안에 그림처럼 아름다운 재활 병원으로 갈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퓌센에 가기로 명확히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저에게 또 다른 집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결정에 대해 오랫동안 망설였기에, 제게 조급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일을 처리하기 위해 항상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모든 것이 마땅히 되어야 할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완전히 믿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저는 자주 제 생각대로 일의 진행을 결정하려 했습니다. 사실 저는 마땅히 순리에 따르는 것, 즉 '무위(無爲)'를 더 굳게 믿고, 모든 것이 적절한 시기에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친애하는 수련생 여러분, 이 정법시기 마지막 순간에 우리 다 함께 용맹정진하며 부족함을 찾아 메우고, 손잡고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갑시다!

자비로우신 사부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유일무이한 수련의 길에서 저와 함께해 준 모든 수련생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6년 스위스 독일어권 법회 원고)

최대한 매 순간 안으로 찾기

글/ 유럽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가족과 함께 이곳 법회에 초청받아 참석했고 오늘 저는 또 독일 북부의 발렌에서 이곳에 왔습니다. 수련생들의 그 생생한 수련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저도 이런 기회를 통해 가족과 함께 제고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도 와서 우리 자신의 수련 경험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60세부터 저는 몇 년간 매일 오랜 시간 컴퓨터 앞에서 매체 작업을 하는 한편 대법 항목도 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고, 사람들에게 파룬따파를 알리거나 대화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보내다가 약 2년 전 제 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몇 분만 지나면 참을 수 없이 아팠기 때문에 앉을 수도, 설 수도,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몇 달간 지속돼 저는 끊임없이 자세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두 시간 이상 자기만 하면 근육을 풀기 위해 억지로 일어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야 했습니다.

그 기간에도 매체 작업은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스탠딩 책상을 하나 놓고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때는 앉아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수련인으로서 저는 이것이 올바른 상태가 아님을 알았

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누락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장 절망적일 때 저는 심지어 이 세상을 떠날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때 저는 사부님께 간청드렸고 사부님께서는 자비롭게 제게 세 가지 일깨움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더냐? 너는 나를 따라가려 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따라가고 나를 돕고자 한다면 자신의 근본적인 집착을 인식하고 이성적으로 대하는 법을 배운 뒤 그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너는 인류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냐?'

저는 이런 일깨움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구한다지만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으로 사부님을 따라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족과 함께 올덴부르크 9일 학습반에 참석했던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설법 영상을 본 후 우리는 차를 몰고 시내 중심으로 갔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쇼핑하러 갔고 저는 남아 광장에 북적이는 인파를 지켜봤습니다.

이때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으며 머릿속에 자주 그들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생각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때 저는 이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좋지 않은 생각들을 몰아내기 위해 저는 거듭 자신에게 '이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부정적

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이 말을 반복해서 속으로 외웠습니다.

점차 제 마음속에 강렬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파룬따파를 알리고 제 생생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상 알리기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시내에서도 사람들과 더 많이 능동적으로 접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보행자 거리의 한 빵집 앞자리에 앉아 법공부를 하면서 서서히 현지 주민, 휴가를 온 관광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거듭 '이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파룬따파를 알리고 진상 자료를 주며 사부님의 경문을 배포했고 사부님의 책과 명혜출판사 책도 판매했습니다. 베트남 수련생 몇 명이 참가한 로스토크 진상의 날 활동에서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의 근본적인 집착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고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누군가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거나 심지어 제 말을 끊기라도 하면 저는 조급해졌습니다. 조급함은 화를 내게 했고 결국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는 감정에 완전히 통제당했습니다. 이는 저를 매우 놀라게 했고 또한 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저는 수련인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인식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된 많은 트라우마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고통을 느끼지 않고 억누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규칙만 지키는 것이 좋다는 마음가짐을 형성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벌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이런 행동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 했고 이는 자연스레 다른 사람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저를 생각하게 했고 제가 더 깊이 안으로

찾도록 촉구했습니다.

수련 과정에서 저는 또 모든 정(情)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잘됐네, 나는 본래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았고 이 방면에는 이미 능숙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 제 몸을 무너지게 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정을 억누르는 것은 수련인이 정을 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작년에 저는 스위스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수련인들이 솔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경험과 그 속의 감정을 마주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생명의 생동감과 기쁨이 바로 여기서 드러날 수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가족에게 제가 어떤 일에 감사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단지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의무감으로 일을 할 때 감사를 종종 소홀히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자신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수련인으로서 저는 이렇게 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중생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 각자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더욱 친밀해지게 했습니다.

안으로 찾다

이런 경험은 제가 갈수록 깊이, 갈수록 세밀하게 안으로 찾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과정의 진정한 함의를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고 이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태는 제가 명혜망 겨울 캠프에 참가해 무술반을 수강한

이후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처음에 본 것은 제 몸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과정에서 코치는 세 번이나 저에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저에게 너무나 힘이 됐고 마치 사부님께서 직접 저에게 말씀하시며 무술을 배우도록 격려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저는 정말로 끝까지 견지하려 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에 또 마주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술은 다른 문파의 것이라 파룬따파와 함께 연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션윈도 사부님의 항목이고 중생구도를 위한 것이며 션윈이 무술 동작과 고전무용 요소를 결합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술은 NTD TV가 개최하는 국제대회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대회들은 본연의 전통과 예술을 부흥시키고 그것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 사부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구심이 사라진 이후 저는 열심히 연습하기 시작했지만 곧 제 몸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견지했고 수료 발표 공연에 참가했습니다. 제가 무대에 올라 무술을 공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저에게는 하나의 격려였고 제 선택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과정은 온라인 수업으로 매주 한 번이었고 그 외에도 4~6주마다 한 번씩 오프라인 단체 훈련이 있었습니다. 코치가 처음에 타지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의 교육 영상을 따라 연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경험이 부족하고 늘 주의가 산만했으며 또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에 요구되는 일련의 동작, 즉 '투로(套路)'를 거의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상응하는 신체 조건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주로 몸의

유연성과 균형을 회복하는 연습을 했고 동시에 학비 할인 조건을 충족하고 싶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꽤 잘 해냈습니다.

3개월 후 첫 번째 오프라인 단체 훈련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우 긴장했고 심지어 두려웠습니다. 저에게 이것은 정말로 무술을 배우고 장기적으로 견지하려 하는지를 결정짓는 시험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사부님의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가고 사람을 구하려 하느냐?'

'네, 그러려 합니다.'

'너는 자신의 근본적인 집착을 제거하려 하느냐?'

'네, 그러려 합니다.'

'너는 인류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냐?'

'무술을 통해 전통 가치가 세상에서 다시 보이게 하고 사람들이 체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신체에 대한 살피기

이 마음을 명확히 한 이후 많은 일에 대한 저의 통찰도 새로운 영역과 차원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입니다. 투로의 각 동작마다 특정 요구와 함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긴밀하게 연결된 이 동작들을 정확하게 해야만 투로의 함의와 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반드시 안으로 찾고 동작의 각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했습니다. 저는 서 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거듭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몸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동작은 반드시 의식적으로 통제하며 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살피기는 더 이상 훈련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

활, 특히 대법 공법을 연공할 때로 확장됐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 눈이 감겨 있는지, 혀끝이 입천장에 가볍게 닿아 있는지, 골반이 바른 위치에 있는지, 양어깨가 이완됐는지, 얼굴에 상서로움이 나타나는지 살폈습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었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처지와 행동에 모든 책임을 졌습니다. 저는 저의 누락을 보았고 의식적으로 보완하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습관이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신과 법이 단단히 연결됐음을 느꼈습니다.

화를 대하는 태도

하지만 이런 살피기는 신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일이 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제 내면에 충돌이 일어났고 곧바로 번뇌, 두려움, 분노 심지어 원망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설거지가 하나의 예입니다. 제가 설거지할 때는 수도꼭지를 가리지 않게 그릇을 놓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설거지할 때는 가끔 수도꼭지를 가리게 그릇을 놓곤 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저는 즉각 화를 내며 그릇을 덜그럭 소리가 나게 한쪽으로 밀어냈고 종종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의 원망은 갈수록 쌓였습니다.

저는 남을 가르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제 방식만이 옳았습니다. 저는 너그러움이 부족했고 배려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분노에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이제 저는 의식적으로 저 자신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의 본래 모습을 똑똑히 보았고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알아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즉시 그것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무술

연습을 통해 저는 이제 의식적으로 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그야말로 신기한 순간이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걷히고 제 마음속에서 화를 돋우는 그 생명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는 화를 알아챘을 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그것과 대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화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너를 상대할 시간이 없어. 나는 심성을 제고해야 하므로 참음을 수련해야 해. 내가 화를 낸다면 참음을 해내지 못한 거야. 그러면 나도 자비로울 수 없고 기껏해야 겉으로만 정중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순간 저는 인(忍)과 선(善)이 없으면 남을 진정으로 감동시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진성(眞誠)하게 말한다 해도 다른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과 이해가 부족하다면 제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닿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다른 사람에게 파룬따파를 알리는 것의 의미와 함의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자신의 근본적인 집착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그것들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또 어떻게 무술을 통해 전통 가치가 세상에 다시 뿌리내리고 사람들이 체험하게 할 수 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끊임없이 안으로 찾음으로써 저는 자신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보았고 이제 그것들을 의식적이고 책임감 있게 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평하고, 하소연하고, 남을 평가하고, 자신을 깎아내리며, 다투고, 기어이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려 하며, 자신을 남에게 강요하고, 각종 소원과 꿈을 추구하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이 모든

것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반대로 제 마음은 열렸습니다. 저는 자신을 살피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분명히 인식하고 느끼며 눈앞의 상황을 어떻게 대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으로 남을 배려할 수 있게 됐고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의 말을 경청하며 동시에 그들 스스로 깨달을 공간을 남겨줍니다. 제가 많이 깨달을수록 남들이 그들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더 잘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 각자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제 이야기를 하며 파룬따파가 제 삶에 가져다준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로 충만해졌습니다.

2026년 명혜망 여름 캠프에서 저는 또 션윈 단원 두 명이 이끄는 유연성 훈련에도 참가했습니다. 저의 체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션윈에는 무술 동작 형식도 있고 전통 경극의 표현 형식도 있습니다.

사람 몸은 잘 유지해야 하므로 단련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몸은 신이 하사하신 하나의 신성한 전당과 같습니다. 그것도 상응하는 광채를 발산해 대법의 장엄함을 실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이완할 수 있고 머릿속의 한계를 돌파해서 다른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의구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마음속에 겸손과 감사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여름 캠프에서 저는 다른 사람과 함께 안으로 찾는 주제에 대해 깊이 토론했습니다. 캠프 전 모두 올해 캠프 규칙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캠프 중 한 비수련자도 저에게 이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현재 인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수련인은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하는 것이지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속의 인연 관계를 모르고 상대방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대방이 지금 마주하고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고 그가 저의 제고를 위해 저의 어떤 점을 비춰주는지도 모릅니다. 캠프 규칙을 통해 저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고 누락이 어디에 있으며 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상대방이 저의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 기꺼이 보려 할 때 비로소 갈등을 해소하고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며 자신에게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비수련자는 지금 이 캠프 규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름 캠프 매체팀의 한 팀원이 저에게 매체팀 업무에 대해 어떤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이후 저는 그에게 다른 사람이 그의 무엇을 비춰주고 있는지 자신에게 묻기만 하면 지금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잘 받아들였고 또 깨달았습니다.

또 한 번의 피드백에서도 저는 계속 매 순간 안으로 찾고 자신을 살피며 실제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격려받았습니다. 학부모 교류회에서 저는 어느 학부모가 한 이야기에 대해 몇 마디 하고 싶었지만 한동안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었고 게다가 영어로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으로 찾으며 이 일이 저의 무엇을 비춰주었는지 자신에게 물었고 그 후 순조롭게 말할 수 있었으며 모두의 도움으로 사람들도 알아듣게 했습니다. 다음 날 누군가 저에게 말해주기를, 그 교류에서 어떤 사람이 제가 한 말이 바로 그에게 부족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고 내면의 충돌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해야 하는지 깨닫도록 도와주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파룬따파를 수련할 수 있음에 한없이 감사합니다. 대법은 저를 위해 문을 열어주셨고 다리를 놓아주셨으며 제가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며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맺음말

이 수련 경험은 몇 주 동안 썼습니다. 저는 거듭 미루었고 정해진 시간도 지키지 못했는데 늘 주의가 산만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자주 쉬어야 했기에 글은 한 걸음 한 걸음 쓰였습니다.

글을 거의 다 썼을 때 컴퓨터가 다시 부팅됐습니다. 재부팅 후 시스템이 문서를 저장할지 물었습니다. 전념하지 않았기에 저는 '저장 안 함'을 클릭했고 결과적으로 일부는 다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주의력 집중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주의력을 한 가지 일에 완전히 집중해야만 저는 진정으로 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일종의 무위(無爲)하고 단순한 상태에 들어가 마치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것은 바로 사부님의 안배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사부님의 강력한 일깨움이 저에게 무술을 배우도록 격려하셨습니다. 무술을 배우면서 그곳 수련생들의 도움까지 더해져 저는 법리에 대해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됐고 심성을 제고했으며 대법의 위력도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이는 제가 수련 중에서 더욱 신심을 가지게 하고 더욱 안정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영감을 주어 이로부터 혜택을 얻게 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스위스 독일어권 법회 원고)

참음의 거대한 힘

글/ 오스트리아 서양인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온 대법 수련생으로, 2009년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션윈이 유럽을 순회공연하는 동안 저는 주방팀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보통 적어도 5개월 동안 지속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계절성 일을 하고 있으며 올해로 벌써 4년째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일을 잘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인(忍)’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데, 오직 ‘인(忍)’해야만 비로소 대덕지사(大德之士)로 수련할 수 있다. ‘인(忍)’, 그것은 아주 강한 것으로서 ‘진(真)’과 ‘선(善)’을 넘어선 것이다. 수련의 전 과정에서 당신에게 ‘인(忍)’하라고 하며, 씬씽(心性)을 지키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도록 한다.”(파룬궁)

이 단락을 더 깊이 깨달은 이후부터 이 원칙은 제 일상생활 전

반을 관통하게 되었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갈등에 직면했을 때 참음의 강대한 힘을 느끼고 법에 따라 어려움을 넘길 수 있을 때면 마음속에서 사부님을 향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솟아납니다.

타인과 자신에게 더 너그럽게 대하다

저는 자주 밖에서 바쁘게 지냅니다. 때로는 션윈 순회공연을 따라다니고 때로는 호텔에서 계절성 일을 하기 때문에 빈에 있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매우 적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자신을 보호해 주는 작은 공간, 즉 자신의 작은 세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작은 세계가 이로 인해 혼란에 빠졌다는 기정사실을 마주해야 할 때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집에 돌아온 이후에도 여러 가지 도전에 부딪혀 제 작은 세계가 한동안 어지러워졌습니다. 사부님의 도움 덕분에 냉정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또 한번 분명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생각에 잠겨 뒤에 있는 사람을 위해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 주지 못했고, 엘리베이터 문이 그 사람 앞에서 '쾅' 하고 닫혀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깜짝 놀랐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을 성공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명 제 입장을 변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며 양보했기 때문에 어떠한 대립도 일어나지 않았고 갈등도 즉시 해소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참음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타인도 보호할 수 있으며, 짜증과 분노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참음은 원망심이 생기는 것을 막고 양측이 업을 짓는 것도 피하게 해 줍니다. 참음의 강대한 힘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션윈과 동행하다

올해 션윈예술단 순회공연 기간에는 크고 작은 많은 교란이 발생했습니다. 한번은 강한 겨울비 때문에 베를린으로 가는 항공편이 취소되어 공항에서 하룻밤을 머물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환승 항공편을 탔지만 결국 프랑크푸르트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여전히 베를린 공항에 착륙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는 기차로 갈아타고 나서야 간신히 주방 식재료를 구매할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원 모두가 제시간에 도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다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션윈 예술가들과도 직접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식사는 저희가 책임지고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번은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던 중 여러 차례 연착되었습니다. 동료의 차가 이미 만석이라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착을 겪으며 여러 차례 환승해서 목적지로 가야 했습니다. 환승 열차를 두 번이나 놓쳤습니다. 결국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길에서 분주하게 이동해야 했고, 마지막에는 캄캄한 밤길을 한참 걸어가야 했습니다.

자정이 조금 안 되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다른 동료들은 여

전히 저희 장비를 내리고 있었고 모두가 이미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면 저는 보통 잘 아는 수련생에게 도움을 청하고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나중에야 이런 돌발적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업무를 가능한 한 적게 방해해야 했습니다. 이는 마음속의 조급함을 없애고 자아를 내려놓아야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념으로 다른 사람과 중생을 대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하기만 한다면, 사부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수련생과 협력하면서 서로 다른 도시의 주방에서 일해야 하고, 동시에 크고 작은 도전에도 많이 직면합니다. 때로는 일부 장비가 즉시 작동하지 않고, 때로는 다른 조리 도구가 부족하며,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너무 촉박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온 마음을 다해 션윈과 중생 구도를 생각하며 사부님을 굳게 믿는다면,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가운데 수련하다

몇 년 동안 션윈 순회공연이 끝나면 저는 스위스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한 계절성 호텔에서 요리사로 일했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영업 성수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손님이 찾아오고, 손님 수는 해마다 늘어납니다. 이는 물론 좋은 일입니다. 특히 손님들이 호텔 프런트에서 파룬따파나 션윈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날씨가 좋을 때면 직원들은 흔히 압박감을 느낍니다. 얼마 전 저는 무의식중에 늘 '빨리'라는 말을 내뱉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빨리 저것을 가져올게요', '빨리 이 일을 끝낼게요' 또는 '빨리 아침을 먹을게요'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시간이 이미 오전 10시였는데도 말입니다. 한 동료가 "평소 속도로 일해도 되잖아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무의식중에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이를 통해 습관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큰 압박을 받을 때 동료와 스쳐 지나가면서 몇 마디 말을 서둘러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말투도 충분히 온화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주방의 업무량이 매우 많아 이미 제 한계에 도달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어려움까지 겪으면 이런 일이 더욱 쉽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저로 하여금 안으로 찾게 했으며, 책임감과 너그러움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적절히 처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는 신께서는 어떤 규칙도 정하지 않았고 자비로 그들의 천국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는 그의 그 천국 세계의 법왕(法王)이다. 우리가 여래라고 부름은 그의 心性(씬씽) 표준 층차의 체현을 가리킨 호칭이다. 그는 실제로 그의 천국의 법왕(法王)이다. 그는 그 세계 속의 무수한 중생을 관리하고 있다. 물론 우리 속인들처럼 법률로써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완전히 慈悲(츠뻬이)하고 선량한 마음으로 관리한다, 모두 그 경지의 표준인지라 아름답기가 비할 바 없다. 그에게는 속인 중의 정(情)이 없다. 그러나 그는 慈悲(츠뻬이)가 있으며 더욱 높은 경

지, 더 순결한 것이 있고, 그에게는 일체 속인이 가진 것이 다 없다."(시드니법회 설법)

저는 이 복잡한 수련 환경이 자비심을 더욱 깊이 수련해 내도록 해 줄 수 있으며, 자비심은 바로 원만에 도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호텔에는 수련생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시간이 서로 달라 함께 연공하거나 법공부를 할 시간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보통 자정이나 그보다 더 늦은 시간까지 설거지하거나 청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일하는 홀 서빙 직원들은 제가 주방에서 일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기도 합니다.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일상생활에 대처하면 이러한 상태가 다른 동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손님들까지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녁에 정기적으로 스위스 수련생들과 함께 '전법륜(轉法輪)'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매일 새벽 3시 40분에 일어나 제5장 공법을 연마합니다. 아침 5시에는 스위스 수련생들과 함께 경문을 공부하고 발정념을 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상황이 허락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수련생들과 함께 야외에서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공법을 연마합니다.

긴장되고 바쁜 시기에 법공부와 연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체득했습니다. 특히 몸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수련생마다 일상생활에서 각자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 있습니

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수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의 피로감은 늘 주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일깨워 줍니다. 특히 발정념을 하다가 정신이 흐릿해질 때면 이 점을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화목한 가정에 대한 근본 집착을 제거하다

올해에야 저는 여전히 사람의 정이 남아 있으며, 이러한 정이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 대모님은 아름다운 가정생활이 어떤 것인지 보여 주셨습니다. 저는 자주 대모님 댁에서 휴가를 보내며 한번 가면 몇 주씩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유난히 편안하고 자유로운 기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대모님은 제가 장차 훌륭한 가정주부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셨고, 이 말은 반복적으로 주입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이 겨우 2세였을 때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줄곧 일에 매달렸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일이 바빴기 때문에 모든 감정을 마음속 깊이 묻어 두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성인이 되어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업무 강도는 전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대법을 수련한 이후 저는 더욱 밝고 명랑해졌으며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요구는 줄곧 엄격했습니다. 수련은 매우 엄숙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련생들이 자주 '근본 집착'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도 이에 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교류에서 누

군가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근본 집착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말이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줬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그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하나의 근본 집착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교류가 없었다면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한 가정생활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제가 더욱 깊게 안으로 찾고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꿈속에서 몇 가지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실 수련하기 전부터 중국을 한 차례 여행하고 난 이후 저는 이미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장면은 늘 서로 다른 시대를 배경으로 했고,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혹은 어릴 때 저를 보살펴 주었던 오빠가 있기도 했고, 깊이 사랑했던 남편이 있기도 했는데 그 남편은 전쟁에서 희생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장면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꿈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이런 장면들이 더욱 강렬해졌고 꿈속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면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펼쳐졌으며, 그 안에 등장하는 누군가가 겪는 고난을 느낄 때면 마음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들은 구세력의 시련이나 교란이며, 본질적으로는 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구세력은 우리 수련자들을 파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

하기도 합니다. 마음속 깊이 감춰져 억눌려 있던 이런 집착마저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올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매우 자애로우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을 내려놓아야만 진정으로 평온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아는가? 지금 낡은 악의 세력이 대법(大法)을 박해하는 가장 큰 구실 중 하나가 바로 당신들의 근본적인 집착이 덮어 감춰진 것임을. 그리하여 이 난을 더 크게 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정진요지 2-원만을 향해 나아가자)

만약 감정과 느낌을 이성적인 사고로 전환할 수 있다면 더욱 빠르게 제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게는 아직 수련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부님을 믿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내 드린 이후 저는 기차를 타고 스위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충전되지 않았습니다. 기차에 있는 전원에 연결해도, 가지고 다니던 보조 배터리를 사용해도 휴대폰은 충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마중 나올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나중에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이어서 “오늘 밤에는 휴대폰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했습니

다.

이 일을 통해 제가 휴대폰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연공 음악과 발정념 음악, 알람도 모두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다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충전기에 연결한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 충전 상태로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정념을 발하며 사부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에게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며 모든 교란을 부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은 이미 완전히 충전되어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사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련하지 않는 한 동료는 업무에서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며 때로는 오히려 너무 많은 일을 떠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상황이 발생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행사를 위해 감자 20kg을 준비했습니다. 동료는 먼저 감자를 찐 다음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 냉각 장비에 넣어 빠르게 식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주방에 들어가 보니 그 장비가 '냉동' 모드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감자는 한번 얼고 나면 더 이상 곁들임 요리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감자가 물러지고 으깨져 수프를 끓이는 데만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감자 20kg을 다시 사서 껍질을 벗기고 손질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냉동고 앞에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잠시 후 감자의 식감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를

오븐에 넣어 가열했습니다. 다행히 식감은 여전히 괜찮았습니다. 이번에도 사부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를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그 동료에게 화를 내거나 성질을 부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사부님,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며 세심하게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아직 인식하거나 깨닫지 못한 것들을 포함해 사부님께서 해 주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수련의 길에서 저와 함께해 주신 수련생 여러분과 모든 중생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스위스 독일어권 법회 원고)

중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글/ 독일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수련 체험을 교류할 수 있게 된 것은 저에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멀었습니다. 단지 제가 이곳에서 차로 10시간 거리에 있는 독일 북부에

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협조인이 법회 몇 달 전에 저에게 이 교류 원고를 써달라고 부탁했는데, 원고를 쓰는 것 역시 저에게는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 저는 몇 번이나 펜을 들었지만 원고 작성을 미루고 미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때까지 갔습니다. 저는 이 교류 원고를 통해 사부님의 안배가 가장 좋다는 것을 실증하고 싶습니다. 또한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는 어떻게 파룬따파에 들어서게 됐는가

2017년 여름, 남편이 해외 연수반에 참가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일주일 안에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뀔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집은 자연보호구역 안에 있었고, 평소에 우리는 종종 몇 시간씩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틀 동안 집안은 온통 침묵에 휩싸였고, 함께 산책하지도 않았으며, 예전처럼 속마음을 털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줄곧 파란색 표지의 책 한 권을 읽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아침, 남편이 그 파란색 표지의 책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오자 저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보, 이 책은 주말에 연수반 선생님이 내게 추천해 준 거예요. 거기서 내가 세 번이나 막 집어 들었는데 그때마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려서, 이제야 마침내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이 책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럼 저는요? 우리 둘은요? 당신은 하루 종일 이 책만 보고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요?”

“당신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보. 나는…한 번 더 읽어봐야겠어요.”

저는 단번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들고 나가기 전에 저를 한 번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몹시 화가 났습니다. ‘파룬따파가 뭐지?’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파룬따파’라는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유튜브 영상 하나가 열렸는데, 노란 옷을 입은 중국인이 연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나도 알아.’ 저는 생각났습니다. 5년 전에 저도 이 공법을 연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임신 중이었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다시는 연공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것이 다시 제 삶에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즉시 일어나서 동작을 따라 연공했습니다. 정말 너무 훌륭했습니다. 에너지가 온몸에 흐르면서 남편에 대한 화가 사라졌고, 그 파란 책에 대한 원망도 옅어졌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제가 연공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파룬따파 공법을 연마하고 있어요!”

“무슨 공법이요? 나는 이 파란 책밖에 몰라요.”

“나도 어제야 파룬따파에 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퍼즐을 맞췄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연공 영상을 보여줬고, 그도 저에게 자신의 파란 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 책은 정말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묻고 찾았던 질문들에 대해, 책에서는 쉬운 말로 지극히 심오한 해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주에 저와 남편은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박해를 알게 되다

연공 동작을 정확하게 배우기 위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연공장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가장 가까운 연공장은 200km 이상 떨어진 베를린에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주말에 대중교통이 없었기 때문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4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2시간 반을 걸어 가장 가까운 바렌 역까지 간 다음, 다시 기차를 타고 2시간을 가야 했습니다. 이 생각이 아무리 미친 짓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 여정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 바로 실행했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기도 전에 저는 아들을 깨웠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걷기 위해 우리는 교대로 아들을 목말을 태웠습니다. 2시간 반을 걸어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기차역에 도착했고, 또 2시간 동안 기차를 타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전 10시, 우리는 베를린 동물원 근처의 연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중국인 수련생이 우리에게 연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오는 길의 피로가 모두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연공을 마치자 온몸에 힘이 넘쳤고 모든 세포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베트남 수련생이 우리에게 브란덴부르크 문에 있는 진상 부스에 함께 가겠느냐고

물었고, 우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잘됐다, 이 훌륭한 수련 공법을 더 잘 알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다음에 제가 본 것은 저를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에 도착하자 거대한 현수막 하나가 단번에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기에는 장기적출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고, 중국의 수련자들이 얼마나 잔혹한 박해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형도 있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현수막을 응시하고 있을 때, 한 중국 수련생이 제게 전단지 몇 장을 쥐여주며 행인들에게 나눠주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제가 훑어보니 안에는 역시 장기적출과 박해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일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전단지를 그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마 다음번에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가야 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에는 줄곧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수련 공법이 어떻게 이토록 잔혹한 박해를 받을 수 있을까?'

집에 돌아와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 수련생이 우리에게 추천해 준 명혜망을 열었습니다. 중국 전통 이야기, 세계 각지의 뉴스, 파룬따파의 신기함 등, 당장 저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박해 코너를 열었고 2017년 9월 28일 자 '상하이 시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보았습니다.

편지에서 말하는 것은 몇 달 전에 사망한 66세의 중국 여성 바이건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이유 없이 수감돼 감

옥에서 고문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독방에 갇힌 4년 동안, 화장실 가는 것이 금지돼 용기 하나에만 용변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감옥경찰은 그녀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감방의 죄수들까지 핍박해, 그들이 그녀에게 파룬따파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잔인한 수단으로 그녀를 괴롭혔고 심지어 밥에 오줌을 누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수련생은 한 죄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밥을 먹으면 당신이 벌을 받지 않을 거예요." 죄수들은 모두 감동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수련생은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고 주변에는 그녀를 괴롭히는 죄수들뿐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 죄수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랐으며 그들을 자신보다 우선시했습니다. 그녀의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런 처지에서 이 여성은 어떻게 죄수들에게 이토록 자비롭고 관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데 가담한 이 죄수들에게 화조차 내지 않았으니, 이 얼마나 훌륭한 흉금입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파룬따파는 분명 보통이 아니야.'

저는 계속해서 검색했고, 또 수백 수천 편의 이런 보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대자연 속에서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었고, 남편과 함께 수련의 길에 들어섰으며, 심지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베를린까지 가서 수련생들을 따라 연공을 했습니다. 저는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책상 한구석에 웅크린 채 막 우려낸 페퍼민트 차를 꽉 쥐고 있었

습니다. 마치 이 끔찍한 이야기들 앞에서 이 차가 제게 약간의 의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깊이 아는 수많은 수련자가 중국에서 무고하게 수감돼 온갖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정보들은 모두 명혜망에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자신이 정말로 중대한 일을 발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설마 나 혼자만 이 보도들을 읽고 있는 걸까?' 생각하면 할수록 저의 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전 세계가 반드시 파룬따파를 알아야 한다.'

이제 9년이 지났습니다. 만약 몇 년 전에 누군가 제게, 언젠가 제가 기자가 돼 박사와 교수들을 인터뷰하고 출판사도 경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저는 분명 소리 내어 웃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짊어지다

처음 남편과 함께 수련을 시작했을 때 마음속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매일 그와 함께 법공부와 연공을 하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15년 후에도 자신이 매일 새벽 5시에 '전법륜(轉法輪)'을 읽고 나서 연공을 할 것을 생각하면 조금 두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 두 사람의 오랜 반려자 관계에 대해 안도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저의 유대감은 너무나 깊어서 죽음조차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룬따파를 통해, 모든 수련인은 원만한 후 각자

자신의 길을 간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법제자로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세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는 자신 세계의 왕이며, 각자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 천국의 촉탁을 지니고 세상에 태어났나니 그런 천국들은 모두 그들의 왕을 기다리고 있다네”(홍음 4-사명).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수련에 성공한 후 저는 홀로 남게 될 텐데, 남편은 그의 세계로 돌아가고 저는 저의 세계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저는 참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깊은 슬픔이 마음속으로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 슬픔을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그것이 언젠가 남편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 거대한 책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임을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문득 수많은 생명을 느꼈습니다. 어떤 생명은 제가 제 세계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어떤 생명은 저를 따라 함께 제 세계로 올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고 또한 그들의 믿음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구에서 자신의 사명을 원만히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제 어깨를 누르는 무거운 짐을 느꼈는데, 그것은 제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홍음 4’ 중의 ‘당신의 중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네’라는 시를 읽었을 때 이런 압박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일깨우리라 신과 약속했다네

당신이 세상에 내려온 목적은 대법을 얻으려는 것이고

당신 천국의 중생들이 난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라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사람이 된 연고이나니

세상을 속이는 붉은 마귀가 자신을 해치게 하지 말고

진상을 요해(了解)하라, 당신의 중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하지만 이 ‘사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저는 여러 해 동안 생각했습니다. ‘사부를 도와 중생을 구한다’는 답은 제가 보기에 너무 표면적인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출판사 책임자가 되다

저는 언젠가 출판사를 경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없었지만, 일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영문판 ‘명혜 20년 보고서’라는 책을 번역해야 했는데, 제가 자원했습니다. 당시 저는 에포크타임스에서 몇 년 일했기에 이미 원고 편집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혜 20년 보고서’ 안에 있는 수련생들의 고난을 기록한 그토록 많은 글은 단지 문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능욕당하고 고문을 겪은 수련생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일들은 밤마다 악몽으로 변해 저를 괴롭혔고, 저는 종종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더는 번역을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초판이 완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정된 양장본이 다시 나

왔고, 출판사를 통해 발행해야 했습니다. 제 기자 업무가 인권 수호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진해서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2022년 2월, 저는 명혜출판사를 등록했습니다. '명혜 20년 보고서'에 이어 여러 권의 명혜 잡지를 잇달아 출판했고, 2025년 11월에는 서양 수련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우주의 근원으로 가는 길(Der Weg zu den kosmischen Wurzeln)'을 출판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명혜 20년 보고서'(영문판, 독어판)는 사람들에게 박해 진상을 알리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저는 종종 진상 부스에서 관심을 보이는 행인들에게 이 책을 선물했는데, 그들 역시 중국공산당(중공)의 박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종종 다른 공간에서 거대한 무리의 생명들이 금빛 속에서 목욕하다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널리 전해 중생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사부님의 자비로운 은혜와 위대한 안배 덕분입니다.

취리히 진상 부스에서의 경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교류할 수 있는 것 역시 사부님의 비범한 안배를 실증합니다. 작년에 법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이미 기적 같았습니다. 당시 스위스 협조인이 저에게 남편과 함께 오고 싶은지 물었을 때, 제 첫 반응은 매우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차도 없었고, 저는 간호가 필요한 어머니를 거의 24시간 돌봐야 했기 때문에 먼저 스위스에 갈 생각을 접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제 마음속에 아주 순수하고 바른 생각 하나가 생겼습니다. '왜 안 되겠어? 왜 내가 남편, 아들과 함께 스위스 법회에 참가할 수 없겠어? 이미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사부

님께서 분명히 이미 안배해 놓으셨을 테니 나는 그저 굳게 믿기만 하면 돼.'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틀 만에 우리는 좋고 저렴한 중고차를 구했고, 어머니를 며칠간 돌봐줄 간병인도 안배했습니다. 숙소를 찾을 때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출발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짧은 가족 휴가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법회 며칠 전, 저는 갑자기 협조인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토요일에 법회에 가는 길에 취리히 진상 부스에 들러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우리는 멍해졌지만 수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휴가가 아니라 대법에 동화하고 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이것이 바로 사부님의 안배라는 것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낙했습니다. 우리는 이 진상 부스에 대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금요일 심야에 우리는 길을 떠났습니다. 몇 번의 짧은 휴식을 제외하고 남편은 밤새 운전했고, 약 11시간 후 우리는 취리히에 도착했는데, 현지 수련생들과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렀습니다. 그중 몇몇 수련생은 제가 명혜 여름캠프에서 이미 알고 지내던 이들이었습니다. 아들 역시 한 소녀와 금세 친구가 됐는데, 예전에 여름캠프에서 본 적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부스를 설치하고 있을 때, 저는 길모퉁이에 서서 전단지를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치심, 부끄러움, 거절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이곳은 낯선 곳이고 사람들의 말투도 달랐으며, 더욱 최악인 것은 견디기 힘든 졸음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어느 카페에든 숨어 들어가 좀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보았는데, 그는 밤새 운전을 했음에도 여전히 활기차고 자신감에 넘쳤으며,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행인들에게 다가가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안으로 찾았을 때 저는 자신의 누락을 보았습니다. 제게는 원망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푹 쉬지 못하고 이 진상 부스에 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원망했습니다. '집에서 신경 써야 할 일이 아직도 모자란가?' 당시 저는 이미 1년 넘게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2024년 8월 심각한 뇌졸중으로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저는 좀 쉬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부스와 수련생들에게 머물렀습니다. 아들과 그 소녀를 보았는데, 그들도 전단지를 들고 미소 지으며 행인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운을 차리고, 원망심과 편안한 가족 휴가를 바라는 마음을 제쳐두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부님, 사부님의 위대한 안배 덕분에 제가 집에서 거의 1,000km나 떨어진 스위스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제가 구해야 할 중생들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자 모든 원망심이 흩어졌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습니다. "일정압백사(一正壓百邪)."(전법륜)

잠시 후, 젊은 커플이 스쿠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부스에 있는 박해를 알리는 대형 전시판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그들에게 전단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알고 보니 청년은 러시아에서, 여자 친구는 체코에서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독일어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저는 그들에게 박해의 배경

과 파룬따파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거의 1,000km나 떨어진 독일 북부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네요. 하필이면 우리 세 사람이 오늘 스위스의 이곳에서 만나다니, 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틀림없는 운명의 배치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이를 통해 사부님의 안배가 얼마나 독특한지 제게 보여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공간에서, 우리가 파룬따파를 알려주어야 할 중생과는 일찌감치 인연이 맺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안일을 탐하는 마음을 따라 카페에 숨어 쉬었다면 이 커플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사부님의 격려에 감사드렸습니다. 하지만 불과 1분 뒤 저는 또 하나의 시련에 직면했고, 마음은 순식간에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스쿠터를 타고 떠나는 그 커플을 향해 손을 흔들며 작별인사를 하고 있을 때, 길 건너편에서 갑자기 아시아인 무리가 걸어왔습니다. ‘중국인 20명쯤 되겠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는 작은 도시에는 중국인도 없고,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도 없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것을 느꼈는데, 사상업력은 제가 이 사람들과 대화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온갖 이유를 댔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걸래? 저들이 너에게 욕을 하면 어쩌려고? 넌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어떻게 권하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 그들에게 파룬따파를 이야기할 필요는 더더욱 없어! 그리고 방금 저 두 아시아 여자가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는데 못 봤어?’ 저는 몇 분 전에야 세워놓은 자신감을 이 사상업력들이 산산조각 내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보았고, 단 몇 초 만에 전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무리 중 몇 명은 우리 부스를 가리키며 이상한 손짓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의 정념이 떠올랐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보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내가 가서 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중국어 전단지 한 뭉치를 움켜쥐고 그 무리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부스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 모여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고, 어떤 사람은 서서 수다를 떨고, 어떤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저는 벤치를 택했습니다. 용기를 냈지만 약간 겁먹은 채로 65세 정도 돼 보이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고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속 돌덩이가 내려앉으며, 일단 말을 거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단지를 건네려 하자마자, 그녀는 불쾌하다는 듯이 손을 내저으며 제게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는 다른 사람들도 앉아 있었지만 그들 역시 모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부님, 저는 이 생명들을 보내주신 분이 사부님이심을 압니다. 저는 단지 저와 가장 인연 있는 사람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문득 다른 벤치에 같은 일행인 여성 한 분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다가갔지만 그녀 역시 제 전단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소 불쾌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중국 사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왔어요!”

저는 서둘러 사과하고, 즉시 부스에서 한국어 전단지를 가져왔습니다. 그 여성이 슬쩍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파룬따파.” 그러고는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일행 중 다른 사람들도 호기심에 다가와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찬성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1분 뒤, 가이드 한 명이 와서 이 한국인들을 버스에 태웠습니다. 만약 제가 이 여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관광객들의 손에 전단지를 전해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사부님의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드렸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부스에 돌아오자, 한 수련생이 제게 1장부터 4장 공법까지 함께 연공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승낙했고, 이것이 마치 중생이 구원된 후 제게 주어지는 보상 같아서 연공할 때 긴장도 풀고 에너지도 보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발을 벗고 미리 준비된 방석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굳게 설 수가 없었고 마치 배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발밑을 보니 확실히 가부좌 방석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고 연공을 시작했지만, 동작 하나를 할 때마다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제2장 공법은 특히 어려웠는데, 정말로 풍랑이 치는 배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3장 공법을 연마할 때는 흔들리는 느낌이 더 강해져서 저는 몇 번이나 눈을 떠야 했습니다.

제4장 공법을 연마하며 허리를 아래로 굽힐 때는 하마터면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연공을 계속했습니다. 어쨌든 1장부터 4장 공법까지 연마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한 시간 후 연공을 마쳤을 때 저는 이미 기진맥진해 두 다리가 떨렸고, 그저 앉을 곳만 찾고 싶었습니다. 마침 12시가 거의 다 돼 정념을 발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방석 위에 앉고 나서야, 방석 아래에 작은 스펀지 조각이 깔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연공할 때 똑바로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는 사부님께서 이 일을 통해 수련에서 발을 단단히 내디디고 확고히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정념이 없고 중생구도에 대한 또렷함과 확고함이 없다면, 우리는 누락을 남기게 돼 사상업력이나 구세력이 틈을 타고 우리를 교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명확할수록 사부님의 안배를 더 잘 따르고 사부님을 도와 중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로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자비로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스위스 독일어권 법회 원고)

▲ 2026년 10월 11일, 우크라이나 파룬따파 수련자들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수련심득교류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키이우 수련자들이다.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85명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798만 1201명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